

# “평동외투 분양, 왜 市만 반대하나”

# 기아차 임단협 타결...내년 3월 밤샘근무 폐지

## 광주지역 中企 간담회... 광산업·R&D 지원 등 주문 봇물

“평동외투지역은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은 물론 정부, 산업단지공단도 분양 전환에 긍정적인데 왜 광주시만 반대하는 겁니까.”

“최저 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납품 단가는 해마다 깎입니다.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라는 겁니까. 대기업 인업을 건설인력 모델처럼 표준화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광주 첨단산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역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평동외투지역 분양 전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등 애로사항을 작성한 듯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김동철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또 광주를 방문한

송중호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이의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이현수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 정진수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장 등 지역경제 관련 기관장 10여명과 지역 중소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주 평동외투지역경영자협의회 부회장은 “평동외투지역은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외국인 투자비율을 맞춰야 해 불가능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 여기에 해마다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도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투자 확대와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양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정부와 산업단지공단도 분양 전환에 공감하고 있는데 유독 광주시만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광주에도 외투지역이 있다는 걸 모순만 보여주려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찬구 (주)프로맥엘디 회장은 “정부의 R&D지원사업이 대기업에 치중되면서 중소기업 연구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기업은 능력과 재원이 풍부한 만큼 중소기업 위주로 R&D 예산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인 LED미니클러스터 회장은 “클러스터 지원사업이 결실을 맺으면서 광주 광산업은 정부지원 사업의 대표 사례로 떠올랐다”며 “하지만 정책방향이 초광역화되고 지원예산마저 대폭 줄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정철 (주)한국그린과 대표는 “평동산단에는 보육·체육·교육시설

이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직장맘들이 꺼려한다”며 “종합지원시설을 건립해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박권수 (주)명품 대표는 “매년 연결모습만 보여주려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건설인력의 임금 표준화처럼 대기업 인입도 표준화해 납품 단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중호 중소기업청장은 답변을 통해 “중소기업청만 하더라도 연간 72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지원되는 R&D예산은 중소기업 위주로 대폭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대기업 인입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프로젝트 속도·격려금 두둑

기아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협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광주공장은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두둑한 격려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유통업체도 모처럼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노사가 잠정 합의한 올해 임단협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임금 부문은 투표자 2만8557명 중 63.3%(1만8063명), 단체협약은 2만8595명 중 54.6%(1만5559명)의 찬성률로 각각 가결했다.

특히,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던 광주공장 노조는 임금 69.

5%, 단협 58.0%의 찬성률을 기록해 화성·소하리공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단협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기아차 모든 공장에서 밤샘근무가 사라지게 됐다.

주간연속 2교대제의 주요 내용은 ▲내년 3월4일부터 전 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본격 시행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당 생산대수(UPH) 향상 등 생산성 제고로 총 생산량 보전 ▲종업원 임금 안정성 증대를 위한 월급제 시행 등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행 주·야 각 중 10시간씩 일하는 주야 2교대에서 1조 8시간(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 9시간(오후 3시40분~새벽 1시3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작업하는 근무 형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도 현행 ‘10시간+10시간’ 기준 2137시간에서 ‘8시간+9시간’ 기준 1887시간으로 250시간(11.7%) 줄어들게 된다. 그 대신 시간당 생산대수를 308.3대에서 338.3대로 높이기로 했다.

임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기본급 5.3%,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600만원 ▲생산·판매향상 등 특별 격려금 150%+360만원(재래시장상품권 10만원 포함) 지급이다.

지급 시기는 타결과 동시에 150%+90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10월 말 100%+50만원, 12월 말 250% 등 3차례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사는 17일 소하리공장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14일 광주 첨단산단내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회의실에서 송중호 중소기업청장, 김동철 국회의원, 이현수 산단공 호남권본부장,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중소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아차 해외서 약진...현대차 앞섰다

최근 기아차가 상당수 해외시장에서 약진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현대차마저 뛰어넘었다.

16일 완성차업체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1~8월 러시아에서 현대차 11만6868대보다 많은 12만4133대를 판매했다.

기아차가 작년 1~8월보다 24% 많은 차를 팔아 현대차의 성장률인

18%를 앞지른 결과다.

기아차는 2010년 중공화국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생산되는 리오와 칼리나그라드에서 조립 생산되는 씨드, 스포티지, 쏘렌토 등으로 고속 질주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기아차가 현대차를 뛰어넘은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차는 울초에야 프랑스 직영법

인 운영을 시작했지만, 기아차는 오래전부터 적법법인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올 1~8월 2만1640대를 판매해 현대차 1만8145대에 앞섰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글로벌 판매는 현대차 280만4960대, 기아차 179만5427대로 현대차가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지만, 최근 주요 시장에서 기아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그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 미국에서 기아차는 작년보다 16.6% 성장해 현대차 8.8%의 두배 가까이 기어올라 성장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 한국 신용등급, 3대 신평사 모두 격상 '세계 기록'

### 한달새 모두 상향 유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한 달 안에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상향평가를 받는 세계 기록을 세웠다.

작년 이후 'A 레벨' 국가 가운데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이 같은 해에 모두 올라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등급 올리면서 불과 19일 만에 한국의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이 모두 상향조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 우리나라가 같은 해에 3대 신평사 모두 무리부터 등급이 올라가는 성적을 거둔 것도 2002년 이후 처음이다.

2002년에는 'BBB+'에서 'A-(피치는 A)로 올라간 것이다. 따라서 올해 거둔 '더블A(AA)' 등급(S&P만 'A+') 획득이 더 뛰어난 실적이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3대 신평사로부터 상향조정된 것은 과거에는 2차례뿐이었다.

3개사 종합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A+'에서 'AA-'로 올랐다. 'AA-'는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Aa3'과 같은 등급이다. 【연합뉴스

했다. 당시 S&P와 피치가 'AA-', 무디스는 'A1(A+와 동급)'을 매겼다.

이번 한국 신용등급의 대기록 작성은 무디스에서 출발했다.

무디스는 지난달 27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올렸다. 지난 4월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꾼 데 이어 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등급까지도 올린 것이다.

이어 지난 6일 피치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올렸다. 'AA-'는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Aa3'과 같은 등급이다. 【연합뉴스

## 광주상의 기업자문위 구성... 현장 경영지원 강화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경영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지역 기업의 경영 자문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구성된 뒤 활동이 주춤했던 경영자문위원회를 23명의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해 역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경영자문위는 대학교수·산업별 전문가·유관기관

관계자 등 '지역경제 자문단'과 노무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가 그룹의 '기업비즈니스 자문단'으로 나눠 구성했다.

이들 경영자문위는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목표로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와 기업의 발전, 상의 역량 강화에 관한 자문, 연구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광주상의는 지난 14일 광주상의 3

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1차 경영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운영 방안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자문위와 광주상의가 발 빠르게 대응해 지역경제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번호 숫자	
3 7 14 23 26 42	24	
등 위	당첨금액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165,579,250	6
2 5개 숫자+플러스 숫자 일치	58,529,169	37
3 5개 숫자 일치	1,420,984	1,524
4 4개 숫자 일치	50,000	72,310
5 3개 숫자 일치	5,000	1,209,004

# 태양광발전 주택보급

## 농협 1년거치 5년 상환 자가부담 전액융자

한번의 선택으로 30년간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국내산 인증품 모듈로 시공해 드리며 검수는 한전전기안전공사에서..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주택
- 누진세 때문에 걱정되는 주택
-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된 주택은 **물량부족, 미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있는 주택
- 건축물대장이 없어 시공가능
- 2013년부터는 태양광전문기업에서 **자체사업추진 예정**이며보조대신 **용자사업으로 대체** 예정임
-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다음달로 **저축해서** (여름이나 겨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kwh)	요금(원)
100	7,010
200	21,230
300	42,370
400	75,270
500	124,340
600	207,470
700	284,480
800	361,490
1000	515,510

**상담문의** (주)셈 에너지 광주지점

광주 전남 동북부지역 062-528-3070 019-655-5678

전남 남서부지역 061-727-2371 019-624-2371

#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가슴 뛰는 삶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후불제여행을 경험해보자.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산악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후불제투어 특징**

- 후불제여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월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악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만기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전금적립후 계약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만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일반,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자는 무경력,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세비부담없음)

\* 고객의 회비는 공정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지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